

with

VOL.14 / Spring



●
●

Change

도박의 행운이 아닌 삶의 행복을 만나다

Contents



VOL.14 / Spring

건강한 **몸**

03

좋은 생각

행운과 행복의 차이

04

권두언

안국동 시대에서 충무로 시대로

06

지상좌담회

유명인 도박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모럴해저드의 늪에 빠진 노블레스 오블리주

12

KCGP 이슈

2019년 제2차 도박문제 포럼
도박중독 재활서비스 위한 첫걸음

소중한 **스**

14

특별한 만남

실패가 선물한 제2의 삶
연예인 1호 상담교정전문가 권영찬

18

도박 인문학

헤르만 헤세, 싯다르타

20

#해시태그

바야흐로 취향의 시대
당신만을 위한 랜선 핫플 나들이

행복한 **철**

22

글로벌 포커스

빅브라더,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원회

24

도박문제 바로알기

알기 쉬운 법률 Q&A

26

물입의 기술

참 쉬운 베란다 텃밭 가꾸기

28

KCGP 뉴스

지역센터 소식

30

독자마당

독자퀴즈



행운과

우리는
네 잎 클로버가 주는
뜻하지 않은 행운에서
얻는 기쁨보다

우리 주변의
세 잎 클로버를 통해
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행복의 차이



안국동 시대에서 충무로 시대로

글 황현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한

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지난 4월 1일 6년 동안의 '안국동 시대'를 마감하고 퇴계로 국민연금빌딩으로 이전해 '충무로 시대'를 열게 됐다. 센터는 안국동에서 탄생해 유년기를 보냈다면, 충무로에서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크며 일탈하기도 쉽다. 지난 2018년 청소년도박 중독실태 조사에 따르면 문제도박 학생비율은 5.1%에서 6.4%로 크게 늘어나 센터의 임무가 더 막중해졌다. 기술발전으로 도박 접근이 용이해져 장소적·시간적 제약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게임과 도박이 융합하거나 경계가 없어져 더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다.

센터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종사하는 직원들이 센터를 보람찬 일터로 여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 스스로가 자중자애하며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는 직원 스스로 자신감을 키워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직원 과반수가 석·박사 소지자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부단히 노력해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센터는
안국동에서 탄생해
유년기를 보냈다면,

충무로에서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아직까지 지역센터 추가설치, 재활사업추진체계 구축 등 안전망 구축이 완성됐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예방·치유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은 건너뛰 수 없다. 청소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보다는 직원 스스로가 센터의 장년세대를 어떻게 맞이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임무수행을 위한 소양을 기르는 데 역점을 뒀야 한다. 아울러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 재활과 회복유지라는 센터의 소명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객이 없는 조직은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센터 직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

유명인 도박문제

모럴해저드의 늪에 빠진 노블레스 오블리주

일부 재벌, 스포츠 및 연예인 스타 등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탈선행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게다가 최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과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불편한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이들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회초리로 연일 못매를 맞고 있는 이유다.

반박도 만만치 않다. 타인의 시선에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공인으로서 이러한 실수에는 너그러운 선처를, 스트레스의 벼랑 끝에서 저지른 한때의 실수에는 가혹한 주홍글씨의 낙인이 아닌 한시적 면죄부로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그 논리다.

하지만 이들 유명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부재는 우리 사회, 특히 청소년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귀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허물이라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 선을 긋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정신적 충격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이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큰 사건이 터졌을 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도박이 어떻게 죄가 되고, 어떻게 나쁜지 그 기준을 명확히 제공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럴해저드의 늪에 빠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부재가 아쉬운 오늘날이다.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성공한 공인은 대중으로부터 사랑과 신뢰, 금전적 보상과 명예를 함께 거머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의 일탈 행위가 대중을 향한 ‘심리적 공격 행위’, ‘폭력 행위’ 등으로 상실감을 그리고 선정적 언론보도는 ‘루핑효과(관심이 확산되는 현상)’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일까.

사회·진행 편집실



유명인 도박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①



②



③

- ① 안진웅 |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 ② 유홍식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③ 하재근 | 대중문화평론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박을 자신들 스스로
휴식이라는 보상을 주기 위한
일종의 재미거리로 간주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Q 일부 유명인들의 도박 등 탈선행위는 우리 사회, 특히 청소년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홍식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만이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됩니다. 이들은 자기 일에만 충신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 시스템 내에서 공인의 길을 걸어왔고 실제 공인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사랑과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의 도박행위는 사실상 대중들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 사회 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들이 불법 도박행위에 사용한 돈의 규모는 대중들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획득한 금전적 보상을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사회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적은 돈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심리적 공격 행위입니다. 특히 이들 연예인들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한 상실감을 주고, 청소년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는 폭력 행위라고 봅니다.

하재근 연예인 스타는 공인은 아니지만 웬만한 공인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예인이 도박 등 탈선행위를 했다고 하면 청소년은 '아, 그런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이구나'라고 부지불식간에 인식하게 됩니다.

탈선 연예인이 한두 명이 아니란 것이 문제입니다. 도박의 경우 대중에게 친밀감을 주는 예능 스타들이 잇따라 연루되면서 청소년이 도박을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박문제로 인한 자숙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방송에 복귀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까지 하기 때문에 더욱 청소년의 경각심을 무너뜨립니다.

도박 관련 연예인들이 토크쇼에서 '칩사마' 같은 식의 농담으로 도박을 희화화하는 것도 청소년이 도박을 '별 것 아닌 가벼운 문제' 정도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명스타들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자각하고 보다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진용 우선 연예인을 '공인'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해외의 '셀러브리티'라는 개념처럼 '유명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웬만한 고위 공직자나 공무원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들을 따르고 동경하는 청소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공인은 아니지만 그들이 평소 언행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서태지와 아이들이 '캠백훅'을 발표했을 때, 실제 적잖은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들은 그들이 우상으로 삼는 연예인들의 행보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명인들의 도박 및 탈선행위는 반드시 엄단하고 근절돼야 합니다.

Q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성공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재근 성공이 결국 일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는 정상만 보고 달리다가 막상 정상에 오른 후에는 공허감을 느끼면서 뭔가 자극적인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상류층의 지위를 구축했기 때문에, '나 정도는 이런 일탈을 해도 된다'는 심리도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행위에선 더 이상 만족을 못 느끼게 되고 도박처럼 강한 자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의 화려함과 그렇지 않을 때 사이의 괴리감이 굉장히 커서 공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감도 매우 큼니다. 그러한 공허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면 약한 자극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박이나 약물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진용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과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에게 여유 시간이 생길 때 홀로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박의 유혹에 보다 쉽게 빠지곤 합니다.

평소 그들의 삶은 경쟁의 연속입니다. 매일 순위, 시청률, 흥행과 씨름하며 상대 작품 혹은 동료 연예인과 경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순위가 정해지고 승리를 통해 기쁨과 쾌감을 얻는데 이런 심리기제가 도박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감과 유사합니다. 또한 촬영 현장에서 대기 시간이 길고, 스마트폰이 보급된 것도 도박문제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큰돈을 벌니다. 당연히 씹씹이도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소비 행태가 결국 일상생활 중 '내기'에도 적잖은 돈을 걸게 만들면서도 정작 경각심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홍식 일부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도박의 비합리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든다고 봅니다. 현재의 성공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그릇된 탈출구에서 찾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스스로 통제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도박도 자신들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박을 자신들 스스로 휴식이라는 보상을 주기 위한 일종의 재미거리로 간주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박행위는 조절

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통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도박에 대한 욕망과 충동은 강화되어 중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Q 큰 사건이 터졌을 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도박이 어떻게 죄가 되고 어떻게 나쁜지 그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안진용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도박 사건은 그 결과만 자극적으로 다뤄질 뿐,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차단하려는 노력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도박의 기준을 잡기도 애매합니다. 과거 시골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점10원'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죄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근로수입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점10원' 고스톱도 도박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회장 수천만 원에서 억대 돈을 받는 연예인들에게 100만 원 정도가 걸린 내기 골프는 도박의 수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예인들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 즉 공공성입니다. 그들의 재산 규모에 비춰봤을 때는 큰돈이 아닐 지라도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동시에 평소 이런 문제의식을 계몽하려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홍식 유명인들의 도박사건은 언론에 의해 활화산처럼 타오르다가 이내 사라져 버리는 휘발성 이슈입니다. 이는 언론이 도박의 원인과 예방보다는 사건 당사자들의 저명성, 이들의 자극적 일탈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방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회사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가족 관계를 파괴하며 사회의 건강성까지 해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온라인 불법도박은 세금포탈, 범죄수익 은닉까지 이어지는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유명 연예인의



도박에 대해 경쟁적으로 선정적 보도를 하기보다는 단신 뉴스로 처리하거나, 불법도박의 기준·형량·폐해 등을 집중보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사회구성원들이 도박에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재근 얼마 전 '1박2일' 멤버들이 수백만 원대 내기 골프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관련자들이 하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압도적으로 '1박2일'을 두둔했습니다. 내기 골프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그걸 왜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박2일' 팀이 한 내기골프는 판돈 수백만 원 규모였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었고, 이를 최초 보도한 매체는 상습의 정황까지 발견했다며 그 심각성을 꼬집었습니다. 이런데도 누리꾼들이 압도적으로 '1박2일' 팀을 두둔할 정도로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평소에 충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국민 의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타인의 사선에 자유롭지 못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거나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유홍식 먼저 도박행위에 대한 법 적용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인들도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인에 대한 존경 문화와 프라이버시 존중 문화입니다. 언론에 매일 노출되는 공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사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 완전 노출되는 것은 공인 개인과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일 것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자기 성찰을 통해 모범이 되는 공인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문화 그리고 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폐쇄, 특히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로 도박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도박예방주사를 어릴 때부터 놓아 도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강화됐으면 합니다.

하재근 유명인, 사회지도층의 일탈엔 더 엄격히 대처해, 보다 강력한 비판과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선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가볍게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중이 경각심을 가지기 힘듭니다.

도박 사건을 저지른 연예인들을 너무 쉽게 섭외해서 출연시키는 방송사도 문제입니다. 연예인들이 도박을 회화화하는 토크를 하면 그것을 걸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자막 처리까지 하며 강조해서 방영하는 제작진도 문제입니다. 도박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유관단체 등에서 냉철한 감시와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안진용 고위 공직자들은 일정한 기간 교육과 단계를 거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무와 책임을 배우는 반면, 연예인들은 하루아침에 벼락 인기를 얻곤 합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엮나가는 개연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는 개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기보다는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연예인들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정기 교육 등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연예매니지먼트협회를 비롯해 각종 유관 단체에서도 회원사들을 통해 소속 연예인들에게 적절한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같은 잘못에 대해 더 큰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을 지양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려는 정부, 사회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제2차 도박문제 포럼 도박중독 재활서비스 위한 첫걸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중독자와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맞춤형 재활 서비스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 제2차 도박문제 포럼' 도박중독의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사업 추진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글·사진 편집실



각계각층 의견 수렴 및 공론화

2019년 제2차 도박문제 포럼인 '도박중독의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사업 추진 공개토론회'가 지난 3월 1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본격적으로 도박중독 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활사업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공개토론회에는 도박중독으로부터 회복 중인 도박중독자와 가족, 도박관련 시민단체와 연구자, 중독재활시설 및 치료전문병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며 새롭게 추진하는 재활사업을 환영하고 지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도박중독 회복자 이주영 회복으로 가는 길 소장은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재활사업 추진"을 요청했고, 도박중독 회복자 가족인 김미숙 도박문제 예방강사는 "도박중독자인 남편을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닌 환자, 문제아, 장애자로 낙인찍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도박을 조장하는 환경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활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또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김문근 교수는 "재활이 생활현장에서 이뤄짐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군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시설장은 "도박중독자가 직접 재활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활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도박중독의 회복시스템 안에서 전문가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각각 제언했다.

공개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집중외래 치유재활’과
‘단기거주 집중치유재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6~7월 서비스 시범적 제공 계획

이날 참석한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은 도박중독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박중독의 수준과 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재활서비스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박중독 재활사업의 첫걸음에 힘을 실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중독 재활사업의 시작이 한국 실정에 맞는 도박중독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토대로 공개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집중외래 치유재활’과 ‘단기거주 집중치유재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 평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연구결과를 기초로 본격적인 도박중독 재활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Forum



이주영 회복으로 가는 길 소장 · 회복자

“회복자가 바라본 도박중독 재활사업”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여러 영역(재정 · 법률 · 진로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회복동기가 높은 도박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구축 및 확산할 필요가 있다.

김미숙 도박문제 예방강사 · 회복자 가족

“회복자 가족이 바라보는 치유재활 사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중독자 양산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그들이 치유재활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감 위와 도박중독자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한다.

김문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도박중독 재활서비스 도입 방안”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삼고, 도박중독에 대한 재활의 개념을 정립, 효과적인 재활 서비스를 찾아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이천근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시설장

“도박중독의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도박중독에 대한 재활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선 시범 등 재활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세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면 외국의 좋은 모델을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천영훈 인천침상리병원 원장

“도박중독 치료환경 구축”



중독자들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어려움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도박중독자 속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권영찬

연예인 출신 1호 상담코칭전문가

실패가 선물한 제2의 삶

권영찬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심리학과 교수

‘권영찬’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무척 많다. 개그맨, 연예인 1호 상담코칭전문가, 교수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삶의 궤를 살고 있는 그이지만, 이 중 거저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실패와 고난을 딛고 악착같이 일어난 끝에 만난 제2의 삶. 권영찬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과 함께 연예인 도박중독에 관한 이야기까지 낱알이 들려줬다.

글 성소영 사진 홍승진



좋은 중독은 행복을 만든다

연예인 출신 1호 상담코칭전문가로 활동하는 권영찬 교수의 한 달은 숨 가쁘게 흘러간다. 뽀뽀한 강연과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고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 역할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 삶의 지평을 열어준 상담코칭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는 국민대 문화교차학 문화심리사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수료를 마쳤고, 현재 박사논문 막바지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나날들이다. “아내가 승무원이다보니 비행 하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거든요. 육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바빠요. 오늘도 인터뷰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웃음). 상담코칭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이 아이들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어요. 가족은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버팀목이니 열심히 해야죠. 바쁘지만 그만큼 행복합니다.”

권영찬 교수는 인터뷰 내내 ‘행복’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특히 단란한 가정과 좋아하는 일 사이를 오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그는 “공부, 일, 선행에 중독된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상담코칭 공부를 마치고 강연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오랜 방송경력 덕분에 말을 조리 있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심리에 관한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이야기하니 청중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게 강연의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개그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리는 것과는 다른 기쁨이 있어요. 일하는 것이 즐겁다보니 계속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되고, 제가 받은 것을 나누는 삶에도 앞장서게 돼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32분의 개안수술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중독은 빠지면 빠질수록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더라고요(웃음).”



이제 단순히 먹고사는 일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챙겨야 합니다.
행복은 제대로 된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요.
욕심을 줄이고 목표를 바로 세우면
인생에 풍파가 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비 끝에 찾아온 또 다른 삶 그가 상담과 코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 번의 큰 고비를 겪으면서부터다. 1991년 KBS 대학개그제를 통해 공채 9기 개그맨이 된 그는 다수의 유명 프로그램 MC를 맡으며 큰 사랑을 받았고, 사업도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2005년, 늘 탄탄대로일 것 같은 삶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성폭행 누명으로 법정 소송에 휘말렸던 것이다.

가족과 동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 속에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손에 쥔 많은 것을 내려놓은 뒤였다. 이후 주식투자에 실패해 전 재산을 잃었고, 어렵게 복귀한 방송 촬영 중 세트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권영찬 교수는 절망 대신, 삶을 새로 꾸려나가야겠다는 용기를 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아주 지옥 같은 날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생각해보니 이 파란만장한 시간을 이겨낸 경험이 굉장히 값지게 느껴지며, 제 이야기를 어려운 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그맨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

이잖아요. 웃음은 곧 행복한 삶을 만들고요. 타인의 마음을 다독이는 상담과 코칭도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었죠. 결국 연세대학교 상담코칭대학원에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권영찬 교수는 비슷한 듯 다른 상담과 코칭을 융합해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일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상담이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아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 코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지만, 살다 보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일이 잘 안 될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만 못하지?’라며 자책하고 낙담하곤 해요. 이런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과거의 말 못할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변화가는 모습을 보는 일이 제겐 커다란 보람이에요.”

연예인 도박, 그 유혹의 늪에 대해

권영찬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도박, 마약 중독 등에 대한 견해를 들려줬다. 동료의 입장에서 그들이 왜 이토록 잘못된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한정된 스크린을 두고 경쟁하는 일이거든요. 또, 자신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낱알이 공개됩니다. 그러니 일이 잘 안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에 올라도 언제 모든 걸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돼요. 그 방어기제로 도박, 마약 등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은 정신적으로 심한 독감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 거죠.”

즉, 독감에 걸리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먹듯 도박 또한 중독될 수 있는 질병의 일부로 바라보고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거 하나 못 이겨내고!’라는 생각은 금물이지요. ‘살고 싶어서 도박을 했구나!’라고 이해하며 아픈 마음을 보듬어줘야 합니다. 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결국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결코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인기, 돈이 목표가 아니라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기, 노래, 개그를 할 수 있어 행복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세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너 어느 대학 다니니?’가 아니라 ‘어떤 공부를 좋아하니?’, ‘너 얼마 버니?’가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은 무엇이니?’를 궁금해 하는 사회가 되어야죠.”

일부 연예인 동료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권영찬 교수는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나쁜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말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달성했잖아요. 이제 단순히 먹고사는 일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챙겨야 합니다. 행복은 제대로 된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요. 욕심을 줄이고 목표를 바로 세우면 인생에 풍파가 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을 꿈꾸는 어린 친구들에게 이러한 코칭이 이뤄진다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앞으로는 연예인 출신 1호 상담코칭전문가로서 이들을 도와 올바른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구원된 싯다르타가 될 것인가 배회하는 고빈다가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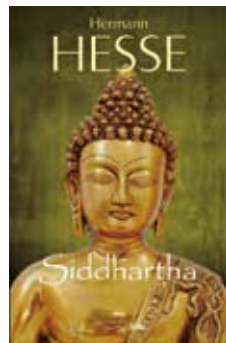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는 작품 속 인물의 고행을 통해 인간의 구제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 명작이다. 특히 동서양의 세계관과 종교관을 자기 체험 속에 융화시키며 내면으로의 길로 지향한 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건넨다.

글 박다운 시인

Hermann Hesse Siddhartha

헤르만 헤세



현대소설을 압도하는 고전, 싯다르타

삶에 위로를 건네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을 보면 마치 소설 속 문장들이 걸어 나와 눈앞에서 대화하는 듯하다. 삶을 성찰하는 인류애의 사랑과 행간에 녹아든 놀라운 시적 언어는 오늘을 살고 있는 상처 입은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독자들에게 힐링이라는 차원 높은 감동을 선사한다.

헤르만 헤세가 1922년 발표한 장편소설 “싯다르타”도 그 연장선상에 해석할 수 있는 고전(古典)이다. 고전이라고는 하지만 드라마틱하고 속도감 있는 전개, 소설 후반부의 반전은 현대의 소설들을 넉넉히 압도한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로 대표되는 “데미안”의 내면 탐구는 “싯다르타”에서도 이어지면서 작품 말미에 ‘넉넉한 인생의 긍정적인 답’을 내놓는다. 마치 삶의 고단함에 괴로워하는 우리를 포용하듯 말이다.

실제로 소설 “싯다르타”에서 헤세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맞닥뜨리는 무수한 고민들을 풀어놓고 치열하게 그 답을 찾아 나선다. 인도 브라만 계급 두 청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구도의 여정, 깨달은 자와 구하는 자가 헤어지고 만나는 눈부신 순간 그리고 사공이 된 싯다르타의 미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고빈다의 마지막 시선까지 미끄러지듯 담아내고 있다.

깨달음은 가르침을 통해 전해질 수 없다?

싯다르타는 부모의 사랑이나 ‘자신의 그림자’와 같은 죽마고우인 고빈다의 사랑도 영원토록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사문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번거로운 제식과 스승의 가르침에 한계를 느낀 싯다르타는 같은 뜻을 가진 친구 고빈다와 함께 고향을 떠난다. 그럼에도 사문의 고행은 이미 크게 성장한 그들의 정신세계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들은 고타마 붓다에게로 인도된다. 그곳에서 붓다의 설법을 듣고 고빈다는 붓다에 귀의하나 싯다르타는 설법에 대한 불신만을 확인하고 떠난다.

깨달음을 갈망하는 그는 이제 가장 밑바닥의 자아를 알기로 결심하고 방탕한 세속 생활에 실제로 몸을 담근다. 술과 도박에 빠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놀이와 같이 그것을 즐겼지만, 갈수록 초조해하고 성패에 연연하게 된다. 최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공인들의 일탈과 절묘하게 겹쳐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이런 생활을 윤회와 어린애의 유희로 보고 경멸하며 도박에 몰입하다가 속세의 생활에서 도망친다. 이후 바수테바를 길잡이 삼아 강의 가르침을 받은 싯다르타는 겸허한 완성에 이르고, 어느 날 여전히 평화를 못 찾고 구도의 길을 걷는 붓다의 제자 고빈다는 강가를 찾아와 완성자 싯다르타를 확인하며 이 소설은 끝을 맺는다.

깨달음은 가르침을 통해 전해질 수 없다며 고타마의 가르침을 뒤로한 싯다르타. 그러나 결국 강가에서 체험한 싯다르타의 뜨거운 경험은 다시 그가 구원받았음을 암시한다. 문제도박과 도박중독에 빠진 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싯다르타처럼 평생을 방황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도박중독은 극복해 가야 할 질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과는 자명하지 않을까. 구원받은 싯다르타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구도의 길을 배회하는 고빈다가 될지 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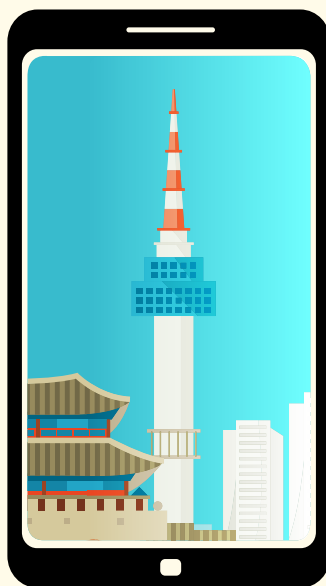
싯다르타는
이런 생활을 윤회와
어린애의 유희로 보고
경멸하며 도박에 몰입하다가
속세의 생활에서 도망친다.



바야흐로 취향의 시대 당신만을 위한 랜선 핫플 나들이

대세는 다시 충무로다. 한동안 홍대와 상수동이 핫플레 이스였다면 요즘 아는 사람은 충무로와 을지로를 간다. 아날로그의 감성과 디지털의 편의를 융합한 신개념 서점 과 문화놀이터는 새로운 성지로, 저녁이면 노가리에 맥주 를 마시는 일명 '노가리호프 골목'은 오가는 이들에게 선뜻 자리를 내준다. 인쇄골목과 조명거리의 간판 없는 빈티지한 카페도 떠오르는 랜드마크다. 한국도박문제관리 센터가 충무로 시대를 맞아 핫한 마인드마크를 소개한다.

글 편집실



큐레이팅 서점 아크앤북



7000 개

책에 담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리테일 공유 플랫폼 기업 오티디코퍼레 이션의 큐레이팅 서점 '아크앤북'이 서울 중구 부영을지빌딩에 들어서며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일상, 주말, 스타일, 영감의 4가지 테마에 맞게 장서 3만 권과 7,000여 개의 브랜드 제품들이 큐레이팅 돼 있다. 특히 한쪽 벽면을 독일 예술서적 전문출판사인 '타센' 도서로만 꾸민 '타센 아트북 스트리트', 일명 책터널로 꾸며 방 문객들에게 영감과 흥미를 주고 있다.

냉면의 성지 인쇄골목



100 %

수요냉식회
평양냉면
터줏대감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를 상징하는 맛은 '평양냉면'이다. 여름철이 되면 우래옥, 필동면옥, 을지면옥 등 이 지역의 냉면 '옥'들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들 냉면들 은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냉면집들이다. 특히 우래옥은 매일 100% 의 순면을 사용하는 유명 맛집으로 한국 냉면 역사의 현장으로 불린다. 독특한 냉면 맛과 남다른 관계로 유명해진 필동면옥과 을지면옥도 이 지역의 터줏대감들이다.

간판 없는 가게 호텔수선화



4

층

복고 감성
인사들의
뉴트로 핫플

빨간 락커로 삼각형 세 개가 포개져 있는 낙서 같은 지표 하나가 전부인 호텔 수선화는 낮은 건물 4층에 자리한 카페. 이름은 '호텔'이지만 카페 겸 바(bar)다. 올라가는 계단 난간 역시 요즘엔 보기 힘든 고동색 목재 난간으로 걸게 손때가 묻은 흔적이 지난 세월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문을 열면 딴 세상이다. 빈티지한 호텔 리셉션처럼 꾸며놓은 카운터와 천장에 달린 꽃무늬 천으로 쌓인 조명은 그야말로 힙 그 자체다.

아재 감성 충무로 인현시장



108

개

다시
골목에
새 바람이
분다

서울 중구 충무로역 8번 출구로 나와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가벼운 지갑으로도 넉넉한 포만감을 채울 수 있는 곳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인현시장이다. 일자로 쭉 뻗어 있는 230m 남짓한 골목에는 108개의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저렴하고 맛있는 안주로 오랜 단골손님들의 마음을 달래주던 골목시장은 최근 SNS의 입소문을 타며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이들까지 속속 모여들게 하고 있다.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5

가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문화놀이터

오재미동은 편집실, 사무실, 교육실, 극장, 창작지원실, 전시실, 아카이브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오재미동이라는 이름은 다섯 가지 이상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다섯 가지 이야기를 담아내는 문화놀이터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곳이다. 실내에서 책 한 권, 영화 한 편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쉼터. 한 번쯤 색다른 데이트를 원하는 연인에게도 강추하고픈 곳이다.

빅브라더



프랑스 온라인도박 규제위원회



프랑스에서는 스포츠 등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려면 자신의 신분을 등록해야 한다.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참여자의 실제 연령을 파악해 청소년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글 윤여수 스포츠동아 기자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 2010년 출범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원회는 중독 등 지나친 도박과 불법 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고, 스포츠도박과 스포츠복권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사행산업을 관리하기 위해 2010년 5월 출범한 독립적 기구다.

이에 앞서 프랑스는 1930년대부터 복권을 발행하는 등 사행 산업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으로 온라인 도박 수요가 커졌다. 동시에 관련 불법도박 역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더 이상 불법도박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만이 불법도박과 도박 중독 등을 막는 방안이라 판단했다. 이에 프랑스는 2010년 5월 관련 법제를 정비했다. 그리고 스포츠와 경마, 포커 등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했다.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도 이때 함께 출범했다.

이 같은 합법적인 시장 운영을 통해 프랑스의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은 60%나 줄어들었다. 물론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 시장은 250%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 샤를르 코폴라니 위원장은 “독점적 체제였던 사행

산업의 수요를 오프라인 복권만으로는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때였다. 도박중독 등 사회적 우려도 컸다. EU 차원의 권고 등도 영향을 미쳐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스포츠도박 시장, 25억 1,000유로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는 온라인 도박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허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행산업을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는 온라인 도박 사업자의 주주 구성과 위법행위 이력, 중독방지 의무이행 의지와 이를 위한 기반구축 및 실행 가능 여부, 운영자금 등 다각적인 기준으로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프랑스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 이후 2018년 현재 경마 8개, 포커 7개 사업자(체)가 각각 온라인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은 온라인 도박 사업자는 스포츠 부문이다. 국영기업인 FDJ(Française des Jeux)가 스포츠복권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 13개 사업자가 관련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로또 등 일반복권과 경마 사업은 PMU(Pari Mutuel Urbain)가 맡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 스포츠도박 부문 사업자(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시장 규모가 커져가고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가 내놓은 2017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온라인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약 25억 1,000유로(3조 2,317억 원)에 달한다. 2015년보다 21%가 늘어난 규모다. 전체 온라인 도박 규모 가운데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포커가 전년 대비 1%, 경마가 8% 각각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하다. 향후 2019년에는 최소 19%, 최대 45%의 성장세를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같은 시기 포커와 경마의 시장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온라인 스포츠도박 시장의 확장세를 엿볼 수 있다.

EU 7개국 도박규제 기관과 협의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감시와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펼친다. 온라인 스포츠도박이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된 이용자인 35세 이하 젊은층, 특히 청소년의 참여와 도박중독 등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참여자 스스로 베팅 상한액과 계좌 입금액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나친 도박에의 몰입과 나아가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도박 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도박의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불법도박을 원천적으로 막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는 이에 따라 영국을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EU 7개국의 도박규제 기관과 힘을 모으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한다.

스포츠 부문을 포함한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감시 외에도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는 스포츠경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승부조작 등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임무도 지니고 있다. 그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베팅이 가능한 스포츠경기 대회에 대한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는 이를 통해 팬들이 스포츠경기 자체를 제대로 즐기는 바탕 위에서 승부조작 등 부정경쟁과 부정경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와 감시, 단속을 더욱 효과적이고 구조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는 내무부와 법무부, 문화부, 올림픽위원회, FDJ 등이 참여하는 승부조작 방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승부조작을 비롯한 부정경기 규제 및 단속 방안과 법제 개선 등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스포츠 부문의 공정한 경쟁을 관리하고 있다. 🏆



알기 쉬운 법률 Q & A



도박문제 바로알기는 도박관련 생활법률 이야기로 도박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법률적·재정적인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도박자와 가족관계에 대한 대치는 물론 자주하는 질문을 Q&A로 재구성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글 김기운 변호사(김기운법률사무소)

사례1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을 허용하는 외국에서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을 차렸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까요?

Q

도박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후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A

형법 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도박장소 등 개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법으로는 금지되지만 베트남 등 외국에서는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이 도박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제3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해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고 있는바, 외국에서의 도박장 개설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내국인은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3조가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도 당연히 죄가 되고, 그 행위가 외국에서는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만 판단해왔습니다(2002도2518 등). 그러므로 도박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을 차렸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도박장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또는 자주하거나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돈이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2 판돈 10만 원의 자장면 내기 마작을 한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까요?

Q

친구 집에서 판돈 10만 원 규모로 자장면 내기 마작 게임을 하였는데 혹시 도박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A

우리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는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84누692)”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자장면 값 내기로 마작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마작 게임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도박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마작을 한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또는 자주하거나 계획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돈이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쉬운 베란다 텃밭 가꾸기

물과 흙, 햇빛과 화분만 있다면 어디에서나 키울 수 있는 나만의 텃밭 가꾸기. 상추와 같은 간단한 잎 채소부터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등과 같은 열매 채소까지 다양한 채소들을 직접 재배할 수 있다. 텃밭 채소로 만든 건강한 요리, 훌륭한 인테리어 효과 그리고 재미와 마음의 힐링은 텃밭이 주는 건강한 물입이 아닐 수 없다.

글 · 사진 송예진 텃밭가드너 · 야미가든 대표

우리 집 베란다 텃밭의 특성 파악하기

베란다 텃밭에 로망을 품고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아직 본인 집의 베란다 환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햇빛이 얼마나 어느 정도 들어 오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다.

남향의 베란다 텃밭이라면 무리 없이 각종 채소나 허브, 꽃 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가을, 겨울에 해가 길게 들어오기 때문에 추위에 강한 작물들을 늦여름에 부지런히 파종해둔다면 겨울에도 풍성한 텃밭을 가꿀 수 있다.

동향과 서향의 집은 해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열매채소나 뿌리채소같이 일조량이 풍부해야 잘 자라는 작물을 키우는 것은 조금 어렵다. 잎채소나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 스파티필름, 아이비 등과 같은 관엽식물이나 허브를 키우는 게 좋다.

북향, 반지하, 집 앞의 높은 건물 때문에 그늘이 지는 곳 등은 보통 식물이 살기에는 햇빛이 많이 부족하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고사리 같은 음지식물이 적합하며 실내등만으로도 키울 수 있는 산세베리아와 식물이 좋으며 단기간에 수확이 가능한 밀싹 등 새싹채소도 추천하다. 늦가을부터 봄이 되기 전까지는 식물을 방에 들여놓아야 한다.



베란다 텃밭 공간 활용하는 법

베란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키우고 싶은 식물은 많아져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화분이 늘어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화분을 바닥에 놓고 키우는 것보다 공간 활용을 위해 3단 선반대를 두고 화분을 올려서 키우는 것을 추천한다. 혹은 행잉걸이를 이용해 꽃이나 허브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화분을
바닥에 놓고 키우는 것보다
공간 활용을 위해
3단 선반대를 두고
화분을 올려서 키우는 것을
추천한다.
행잉걸이를 이용해 꽃이나
허브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화분 선택하기

식물을 재배할 때는 식물의 특성과 크기에 맞게 화분을 골라야 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좀 더 쾌적한 생활을 위해 더 넓고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식물 성장에 맞는 크기를 골라야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다.

먼저 모종을 키우는 화분은 지름이 7cm 정도의 작은 플라스틱 화분 또는 비닐 화분이 적당하다. 열매채소(토마토, 오이, 가지 등), 뿌리채소(당근, 감자 등)용 화분은 깊이감이 있으며 넓은 화분을 사용해야 한다. 화분은 크기가 크고 깊이가 깊을수록 채소가 튼튼하게 자라며 많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다.

상추 등 잎채소는 세로로 긴 화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다란 화분에 넉넉하게 파종해서 자랄 때마다 조금씩 솟아 내주면서 수확하는 재미가 있다. 허브, 화초 등을 키우는 화분은 기본적으로 가로·세로가 10cm 이상 되는 화분이면 된다. 키우다가 점점 커지면 큰 화분을 분갈이해준다. 작은 다육식물의 경우는 아담하고 귀여운 화분을 심는다. 점차 시간이 지나고 다육식물이 커지면 그때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해준다. 🌈

Info



소재에 따른 화분의 특징점

비닐화분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만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플라스틱제 화분 · 그로우백 화분

가격이 저렴하며 가벼워서 이동하기 쉽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우드화분

멋스럽고 통기성이 좋지만 물을 주면서 사용할수록 나무가 썩게 되므로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

토기화분

통기성이 아주 좋으며 오래 사용하면 세월의 흔적이 남아 빈티지한 느낌이 좋다. 하지만 깨지기 쉬우며 크기가 큰 화분일수록 무겁고 이동하기가 어렵다.

세라믹화분

디자인이 예쁜 것이 많으나 깨지기 쉽다.

시멘트화분

멋스러운 크기가 큰 화분일수록 무거워 이동이 어렵다.

양철 · 범랑화분

가볍고 디자인이 예쁜 것이 많다.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하며 녹이 슬 수 있다.

KGGP_NEWS

| 지역센터 소식 |

● 서울남부센터

송실대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교내 캠페인

서울남부센터는 4월 9일 송실대학교 캠퍼스에서 도박문제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에서는 송실대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이름 맞추기, 도박문제 헬프라인 전화번호 알리기, 인형 뽑기는 도박이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들에게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됐다.



● 부산센터

회복유지 프로그램 실시

부산센터는 정규상담서비스(개인상담, 집단상담) 과정을 종결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회복유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프로그램을 참여한 대상자 90% 이상이 단도박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동료 회복자들과의 유대감 증진으로 지지자원을 확보해나감으로써 단도박 실천 및 회복에 대한 동기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서울북부센터

가나안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북부센터는 3월 15일 가나안쉼터와 노숙인의 도박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나안쉼터는 도시락 배달 등 저소득층 자원사업과 노숙인 아웃리치·자활희망근로·인문학강좌 및 면책지원·저축사업 등에 힘쓰는 노숙인시설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사회의 도박중독 문제에서 노숙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노숙인의 취약한 특성을 배려해 예방과 교육, 홍보 등 도박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 대구센터

중독 유관기관 협의체 간담회 개최

대구센터는 2월 19일 지역 내 중독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6개 중독 유관기관과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지역사회 내 중독(도박, 알코올, 약물, 인터넷·스마트폰)문제의 심각성을 상호 공유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유관기관 협의체 네트워크를 강화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이해를 같이했다.



● 인천센터

도박문제 예방 연합캠페인

인천센터는 4월 13일 인천 남동구 주차장(구 체육광장)에서 열린 '남동구자원봉사체험대축제'에 참가하며 도박문제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남동구 소재 27개 단체와 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OX퀴즈 코너를 마련해 불법도박에 대한 위험성과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자신의 도박중독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선별검사도 병행해 실시했다.



● 광주센터

도박문제 없는 학교 만들기 예방사업

광주센터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도박문제 없는 학교 만들기' 예방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 초부터 사업을 준비하며 시범학교 선정에 나섰다. 3월 4일 시범학교 참여의사를 밝힌 고등학교를 선정해 이어 3월 11일과 13일에는 전교생(총 64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선별검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위험 수준 79명, 문제 수준 15명으로 나타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대전센터

꿈자람교육복지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대전센터는 4월 10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꿈자람교육복지네트워크 소속 6개 학교 및 7개 협력기관과 교육취약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꿈자람교육복지네트워크는 지역 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취약 학생들을 위한 교육문화·정서 지원 및 정신건강·상담·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 경기남부센터

군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간담회 실시

경기남부센터는 3월 6일 군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센터의 '2019년 도박문제 없는 군포, Clover Mate Project' 사업의 일환으로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를 공유하고 도박문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남부센터는 군포경찰서와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 경기북부센터

경기북부중독예방협의체 회의

경기북부센터는 3월 10일 중독문제 관련 치유와 지역사회 예방을 위해 구성된 경기북부중독예방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중독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매우 중요하다. 경기북부중독예방협의체는 앞으로 중독포럼(공동세미나) 개최 및 청소년 중독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학교 내 홍보 활동 등을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 강원센터

찾아가는 방문 상담

강원센터는 3월 8일부터 4주간 매주 금요일 군부대에 있는 도박문제 고위험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 및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2019년부터 시행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근무 외 시간의 외출과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군인들의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강원센터 정선분소

강원지역 도박중독자 대상 기초재활지원사업

강원센터 정선분소는 지난 5년 동안 카지노 인근지역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기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현물지원을 실시했다. 기초재활지원사업은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총 71명에게 연탄, 난방유, 부식 등 현물이 지원됐다. 이로써 본 사업을 통해 동절기 기간 장기 체류자의 위기상황 예방은 물론 치유상담 프로그램 참여로 단

도박 의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충북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진단과 대응 위한 정책토론회 진행

충북센터는 지난 4월 1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시의원, 교육청,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충북 청소년 도박문제 진단과 대응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그에 발맞춰 도박 문제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마련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북센터

전주청소년꿈기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북센터는 3월 11일 전주청소년꿈기움센터와 전라북도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박문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남센터

양산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업무협약 체결

경남센터는 3월 29일 양산시를 비롯한 양산경찰서, 양산교육지원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보호관찰소,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울산비행예방센터 등 7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제7기 양산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 상호 간의 교류 및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도박문제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센터

도박사범 기소유예프로그램

제주센터는 3월 5일 제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센터 교육실에서 기소유예프로그램을 3월 27일 실시했다. 이번 기소유예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와 연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제주지역 도박사범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와 폐해, 사이버수사대와의 연계를 통한 법교육 등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개선과 변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소식지 <WITH>는 도박문제 없는 세상을 위한 소통의 창입니다

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QUIZ : 독자 퀴즈

<WITH> 봄호를 읽고 5월 31일까지 엽서를 보내주세요.

- Q1 세 잎 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 Q2 연예인 출신 1호 상담코칭전문가는 누구일까요?
- Q3 프랑스 온라인도박규제위원회가 출범한 연도는 언제일까요?

RIGHT ANSWER :

겨울호 정답

1. 신현준
2. 네덜란드
3. 5년

겨울호 퀴즈 당첨자

- 전기영 | 010-9332-****
김초원 | 010-5585-****
김지은 | 010-4409-****

모바일 독자엽서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빠르고 간편한 <WITH> 참여방법

1. 휴대폰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를 열고 QR코드 접속창을 연다.
2. 접속창을 연 상태에서 소식지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한다.
3. 소식지에 관한 다양한 독자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 참여하신 분들 중 세 분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박의 빛을 희망의 빛으로



☎ 도박문제 전문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6



365일 24시간 상담
동기강화 및 단기상담



정보제공
도박문제 관련 정보, 치유기관 안내,
24시간 서비스 홍보, 위치정보 등 안내



기관연계
도박문제 수준 및 치료동기 확인
> 지역센터 / 민간상담전문기관 안내 및 연계



위기개입
자살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112, 119,
자살예방 전문기관 등 연계 및 즉각적 개입> 사후관리

🖥 도박문제 네티라인 이용안내

netline.kcgp.or.kr



채팅상담
전문상담원과 1:1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 상담
도박문제 관련 질문-답변



자가치유 및 치유콘텐츠
자가실천 프로그램, 자가진단,
도박문제 관련 정보 등 제공



커뮤니티
회복자 포럼, 단체 채팅방 등 참여자 정보 공유